

## - 2019 한발제일교회 사생결단 기도회 2/13 - 싸움 자체가 패배입니다.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21-25)

21 So I find **this law** at work:  
Although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22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23 but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me,  
wag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e.  
24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that is subject to death?  
25 Thanks be to God, who delivers m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in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my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로마서 7:21-25, NIV)

### 1. ( )에서 역사하고 있는 법들

- A.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법 (21절)
- B. 하나님의 법 (22절)
- C. 내 마음의 법 (23절)
- D. 죄의 법 (23절)
- E.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법 (23절)

### 2. ( )을 가진 자들의 문제점

- A. 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싸움을 걸고, 싸움에 빠진다.
- B. 싸울 수는 있지만, 100% 패배한다.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3-24)

- C. 싸움 자체가 패배입니다.

### 3. ( )이 시작하게 된 원인도 다름 아닌, “자기 인간적 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고자 함”이었습니다.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4-6)

### 벨지카 신앙고백서 14항

인간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영예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탁월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자신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도록 버려두었기에 죽음과 죄에 종속하게 되었고,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지성이 하나님의 법을 분별하여 성취하도록 하셨지만 어느 쪽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강압적으로 제지하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런 상태가 인간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죄성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를 완전한 상태라고 억지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기계와 같은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선택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었고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타락 전의 상태에서 인간의 대표자인 아담은 가시적인 아름다움과 좋은 것에 대한 희구에 빠지므로 타락의 길로 접어 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의 편에 서기로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타락이며 인류 불행의 시작입니다.

- 라온성, “이것이 개혁신앙이다”

#### 4.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락 전 아담처럼, 자신의 인간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A. 이것을 증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 )”입니다.
- B. 안타까운 것은, 싸움과 다툼에 빠져 있으면서도 “성령 하나님의 방식” 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 C. 죄의 권세를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싸움과 다툼에 빠져 있고 심지어 그 상태를 모를 수 있습니다.
- D. 자기 자신과의 싸움, 다른 이들과의 싸움에 빠져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11)